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아이스티와 밀크티.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답을 듣고)
 네, 차(茶) 맞습니다. 정확히는 홍차를 주재료로 한 차입니다. 자주 접하지만 제대로 몰랐던 홍차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리기 위해, ‘홍차, 알고 마셔 보자!’를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차는 차나무에서 탄 율을 가공하여 만든 음료를 말합니다. 흔히들 녹차 나무, 홍차 나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라 불리는 차나무의 율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녹차, 홍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율을 산화시키지 않는 녹차와 달리 홍차는 가공 과정에서 율을 충분히 산화시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녹색의 찻잎이 암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유의 맛, 향, 색을 가진 홍차가 됩니다. 충분히 산화된 찻잎을 우려내면 붉은빛의 찻물이 만들어지는데, 홍차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홍차를 즐기는 기본적인 방법은 찻잎을 직접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찻잎을 우려 때 홍차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동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찻주전자에 100℃까지 끓인 물을 세차게 붓자, 찻잎이 위로 떠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찻잎의 움직임을 ‘점핑’이라고 합니다. 점핑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 찻잎이 대류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데, 점핑이 잘 되면 찻잎의 성분이 충분히 우려나게 됩니다.

홍차는 조리법이나 첨가물을 달리하여 취향에 맞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차갑게 우려내는 아이스티, 설탕과 우유를 넣어 부드러운 맛을 내는 밀크티가 대표적입니다. 또 꽃잎이나 과일 조각, 향신료 등을 더하기도 하는데, 그중 감귤류의 향을 입힌 얼그레이가 인기가 높습니다.

홍차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테아플라빈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홍차를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이는 바로 테아닌 성분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매력 많은 홍차, 이제부터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홍차 한 잔 어떠신지요.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순서를 먼저 알려주고 이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② 발표 중간중간 청중에게 질문하며 발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③ 관련된 일화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환기하여 주제 선정의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을 드러내어 중심 화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발표를 계획하며 메모한 것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발표 내용에 흥미를 갖도록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해야겠어. 도입부에서 학생들이 알 만한 음료를 제시해서 홍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도록 해야지. ㉠
- 학생들은 차에 대한 배경지식이 적을 것 같아. 차의 개념과 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줘야지. ㉡
- 찻잎을 우려 때의 포인트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동영상과 활용해서 찻잎의 점핑을 설명해야지. ㉢
- 홍차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 취향에 맞게 첨가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
- 발표 주제와 관련해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홍차의 효능을 알리고 홍차를 마시자고 제안해야지. ㉤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청중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청중 1: 밀크티가 홍차를 주재료로 한다는 걸 알게 되어 좋았어. 발표를 들으니 홍차 고유의 맛과 향이 궁금해져서 발표자가 알려준 대로 홍차를 우려서 마셔 보려 해.

청중 2: 홍차 이름이 찻물의 색 때문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어. 그런데 서양에선 홍차를 블랙티라 부르던데, 찻잎이 산화되면서 암갈색으로 변한다고 했으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청중 3: 홍차에 면역력 증진, 집중력 향상의 효능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유익했어. 차에는 카페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알려주지 않아 아쉬웠어.

- ① 청중 1은 발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직접 이용해 보려 하는군.
- ② 청중 2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③ 청중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군.
- ④ 청중 1과 청중 3은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⑤ 청중 2와 청중 3은 발표자가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적하며 아쉬워하고 있군.

[4 ~ 7]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이 입론한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인공지능 판사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인공지능이 법적 분쟁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판사의 수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법적 분쟁은 늘고 있습니다. 대법관 1인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1,000건이 넘는 탓에 대법원 판결까지 수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판사는 관련 자료를 신속히 조사하여 판결을 내리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판사는 특정한 이해 관계에 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물 수수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판사는 방대한 법전과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합니다.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감정에 흔들릴 여지가 없어서 이른바 '고무줄 판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 2: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찬성 1: 이미 미국, 중국, 호주 등에서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거나 재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에서는 2019년부터 인공지능 판사가 소액 사건을 전담하여 사법 처리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A]

반대 2: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적 발전에도 자율 주행 자동차의 도입이 어려운 것은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판사도 그 딜레마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B]

찬성 1: 반대 측 의견은 충분히 수긍합니다. 하지만 사람 판사도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문제에 앞서 누가 더 합리적 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이 입론한 후에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판사는 기존의 법전과 판례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거나 사실 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사람 판사가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사람 판사가 진행한 재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은 인간이므로, 인공지능 판사 역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종차별과 같은 비윤리적 발언을 쏟아내는 바람에 서비스가 중단된 인공지능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인공지능 판사는 기존 판결이 가지는 불공정 문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공지능 판사가 학습한

과거 판례에 따라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을 감경받고, 생계를 위해 음식을 훔친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는 문제는 반복됩니다. 인공지능이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찬성 2: □□대학교에서 판결문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범죄일수록, 피고의 직위가 높을수록 더 쉽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판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져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C]

반대 1: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토론 후 과제: 인공지능 판사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비평하는 글 쓰기

(나)

알파고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크게 발전하여 인간의 일을 점점 더 많이 대신하고 있다. 이에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자는 요구가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다.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되면 자료 조사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실제로 2019년부터 소액 사건을 인공지능 판사에게 맡긴 에스토니아에서는 사법 처리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존 판례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급속한 시대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 판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감정 등 본질적으로 재량이 필요한 영역이나 도덕적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사법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흐름일 수 있다. 단,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우선은 판사 업무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쟁점 1] 인공지능 판사는 사람 판사보다 효율적인가?	
찬성: 인공지능 판사는 관련 자료를 빠르게 처리하므로 보다 신속한 판결에 기여한다.	반대: 인공지능 판사의 판결에는 사람 판사의 검토가 항상 요구되므로 그 절차가 비효율적이다. ①
[쟁점 2] 인공지능 판사는 사람 판사보다 윤리적인가?	
찬성: 인공지능 판사는 특정한 이해 관계에 얽히지 않아 비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②	반대: 인공지능 판사는 인간에 의한 설계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관점을 갖게 될 수 있다. ③
[쟁점 3] 인공지능 판사는 사람 판사보다 공정한가?	
찬성: 인공지능 판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④	반대: 인공지능 판사는 기존 판례에 따르므로 불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 ⑤

5. [A] ~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반대 2’는 [B]의 ‘반대 2’와 달리, 상대측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한 후 그 내용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② [A]의 ‘찬성 1’은 [B]의 ‘찬성 1’과 달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상대측의 발언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③ [A]의 ‘반대 2’와 [C]의 ‘찬성 2’는 모두, 상대측 발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④ [B]의 ‘찬성 1’과 [C]의 ‘반대 1’은 모두, 상대측의 문제 제기를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다.
 - ⑤ [B]의 ‘반대 2’와 [C]의 ‘찬성 2’는 모두,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질문함으로써 상대측을 압박하고 있다.

6. (가)의 토론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찬성 2’의 반대 신문을 반영하여, 1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과 관련된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찬성 1’의 입론을 반영하여, 2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 도입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찬성 1’의 답변을 반영하여, 2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반대 1’의 입론을 반영하여, 3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 도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을 반영하여, 4문단에서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에 대한 작성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7. 다음은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수정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법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단,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쟁점, 기존 판례, 학계 의견 등에 대한 분석·종합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되면, 분쟁 해결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판사는 복잡한 분쟁에 집중하게 되어 사법 판단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 ①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분석적으로 드러내야겠군.
- ②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평가하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인공지능 기술이 사법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겠군.
- ④ 인공지능 기술의 사법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전망을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해야겠군.
- ⑤ 인공지능 기술을 사법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이 지니는 장단점을 나란히 서술해야겠군.

[8 ~ 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학교 신문 기고란에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학생의 초고]

우리 사회 곳곳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기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기부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기부 참여가 적은 이유로 기부 참여 방법의 어려움, 기부 금액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기부를 ‘소셜 기부’라고 한다. 소셜 기부에는 누리소통망 이벤트나 게시글을 통해 ‘좋아요’를 눌러 기부에 참여하는 콘텐츠 공감형 기부, 누리소통망 내에서 다음 기부자를 지목하여 미션 수행 및 기부를 유도하는 릴레이형 기부가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액 기부나 포인트 기부 방식도 있다.

물론 소셜 기부가 기부자의 선한 의도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부할 수 있고, 기부 참여 방법이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도 누리소통망을 통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소셜 기부는 다른 사람과 기부 활동을 공유하며 기부를 함께 즐길 수 있고, 소액 또는 포인트로 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나 한 사람의 기부 참여는 또 다른 사람의 기부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

8.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중 글에 반영된 것은?

- ① 소셜 기부의 개념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② 소셜 기부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여 글의 목적을 강조해야겠어.
- ③ 소셜 기부를 통한 모금 현황을 밝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 ④ 소셜 기부로 인한 피해 사례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야겠어.
- ⑤ 소셜 기부와 관련된 법적 제도를 언급하여 제재 선정의 이유를 밝혀야겠어.

9. <보기>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설문 자료(대상: ○○시민 1,000명)

ㄱ-1. 기부 경험이 있는가?

있다 24%	없다 76%
-----------	-----------

ㄱ-2. (ㄱ-1에서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부 경험이 없는 이유는?

기부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38%	기부 방법이 어려워서 31%	관심이 없어서 19%	기타 12%
----------------------	--------------------	----------------	-----------

ㄴ. 전문가 인터뷰

“소셜 기부 문화가 확대되어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 개인적인 모금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부금을 여가나 문화생활을 위한 개인적 비용으로 지출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액 기부의 경우는 기부자들이 직접 요구하지 않는 이상, 기관에서 기부금의 사용 내역 등을 밝히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기부금의 사용 계획과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ㄷ. 신문 기사

최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을 위한 온라인 기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한 고등학생은 “기부 인증 게시글을 보고, 저도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으로 손쉽게 기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누리소통망을 통한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공론의 장을 형성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① ㄱ-1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기부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기부금이 기부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적 용도로 유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셜 기부가 악용될 가능성을 구체화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소셜 기부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부 참여의 긍정적 영향으로 추가한다.
- ④ ㄱ-2와 ㄴ을 활용하여, 소액 또는 포인트 기부 방식을 기부 금액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한다.
- ⑤ ㄱ-2와 ㄷ을 활용하여, 기부 참여 방법이 어려워 기부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소셜 기부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로 제시한다.

10. <조건>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작문 상황과 글의 흐름을 고려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청유문으로 마무리할 것.

- ① 나의 작은 움직임 하나로 큰 물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부에 함께하자.
- ② 기부는 공동체 화합의 꽃이므로 소셜 기부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다양한 기부에 동참하자.
- ③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기부의 목적을 이해하고 소셜 기부를 실천해 보자.
- ④ 나의 관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선물이 됨을 알고 기부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기부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기부를 생활화하는 것이 어떨까?

-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며, 접사는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다. 접사는 어근에 덧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파생 접사라고 부른다. ‘헛수고’와 ‘일꾼’의 ‘수고’와 ‘일’은 어근이며, ‘헛-’과 ‘-꾼’은 접사이다.

어근은 단어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므로 단어는 하나 이상의 어근을 포함한다. 구성 요소가 2개인 경우로 한정하면 우리말 단어는 ‘어근+어근’, ‘어근+접사’, ‘접사+어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어근은 규칙 어근과 불규칙 어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규칙 어근은 품사가 분명하고 다른 말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다. 반면에 불규칙 어근은 품사가 분명하지 않고 다른 말과의 결합에도 제약이 따르는 어근으로, ‘아름답다’의 ‘아름-’이나 ‘깨끗하다’의 ‘깨끗-’ 등이 해당한다.

접사는 어근에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붙는 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 ‘꽃사과’의 ‘꽃-’은 접두사, ‘덜개’의 ‘-개’는 접미사에 해당한다. 접두사와 접미사는 어근과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며 문법적 기능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접두사는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할 뿐 파생되는 단어의 품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헛-’이 명사 ‘고생, 수고’에 붙어 파생된 단어는 모두 명사이며, 동사 ‘살다, 보다’에 붙어 파생된 단어는 모두 동사이다. 접미사는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이’가 동사 ‘떡다, 벌다’에 붙어 만들어진 단어는 모두 명사이다.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쌓다’와 ‘쌓이다’의 어근은 동일하다.
- ② ‘군살’은 두 개의 어근으로 구성된다.
- ③ ‘헛발질’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있다.
- ④ ‘맨손’의 어근은 다른 말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 ⑤ ‘따뜻하다’의 어근은 품사가 불분명한 불규칙 어근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의 ㉠과 ㉡에 들어갈 자료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 >

아래 그림에 따라 [자료]를 분류해 보자.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예 →

↓ 아니요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는가? 예 → ㉠

↓ 아니요

접사가 단어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가? 예 →

↓ 아니요

㉡

[자료]

없이, 눈높이, 좁히다, 치솟다, 풋사랑, 슬기롭다

- | | ㉠ | ㉡ |
|---|-----------|-----------|
| ① | 눈높이, 치솟다 | 풋사랑, 슬기롭다 |
| ② | 눈높이, 슬기롭다 | 없이, 좁히다 |
| ③ | 좁히다, 슬기롭다 | 없이, 풋사랑 |
| ④ | 치솟다, 풋사랑 | 좁히다, 슬기롭다 |
| ⑤ | 치솟다, 풋사랑 | 없이, 좁히다 |

13.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아래의 단어들을 음운 변동 양상에 따라 두 부류로 분류해 볼까요?

만형, 짧다, 불나방, 불이다, 색연필

학생: 네. _____ ㉠ _____에 따라 '만형[마텃], 짧다[짧따], 색연필[생년필]'과 '불나방[불라방], 불이다[부치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났는가
- ②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는가
- ③ 모음의 영향을 받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가
- ④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 개수가 달라졌는가
- ⑤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인접한 두 음운이 완전히 같아졌는가

14.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사어는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어 등을 수식한다. 또한 절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부사어는 부사 단독으로 쓰이거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 용언의 활용형으로 나타난다.

㉠ 그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 ① '처음과'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관형어를 수식한다.
- ② '마음으로'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서술어를 수식한다.
- ③ '그래서'는 부사 단독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 ④ '아주'는 부사 단독으로 다른 부사어를 수식한다.
- ⑤ '쉽게'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관형어를 수식한다.

15. <보기>의 ㉠~㉤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그 ㉠ 卍 世尊이 즉자히 化人을 보내샤 [化人은 ㉡ 世尊人 神力으로 드외의 歙산 ㉢ 사르미라] 虛空에서 耶輸의 ㉣ 니르 샷되 네 디나건 네 甞 時節에 盟誓 發願흔 이를 헤는다 ㉤ 모르 느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그때에 세존이 즉시 화인을 보내시어 [화인은 세존의 신력으로 되게 하신 사람이다.] 허공에서 야수께 이르시되 “네가 지난 옛날 세상의 시절에 맹세하고 발원한 일을 생각하느냐 모르느냐?”

- ① ㉠을 보니,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을 보니, ‘ㅅ’이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을 보니, 이어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을 보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을 보니, ‘-느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버이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낳은 덕 떡인 은을 다 갚고자 하였더니
 숙연히 칠십이 넘으니 할 일 없어 하노라 <제1수>

연하에 깊이 곤 병 약이 효험 없어
 강호에 버리언져 십 년 밖이 되었어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괴 성은인가 하노라 <제3수>

달 밝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일다
 단정*을 비껴 놓아 오락가락 하는 흥을
 ㉠ 백구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 알까 하노라 <제5수>

피 소주 무우저리* 우습다 어른 대접
 남은서 이른 말이 초초타* 하건마는
 두어라 이도 내 분이니 분내사*인가 하노라 <제8수>
 - 나위소, 「강호구가」 -

- * 단정: 작은 배.
- * 피 소주 무우저리: 풀로 만든 소주와 무절임.
- * 초초타: 보잘것없이 초라하다.
- * 분내사: 분수에 맞는 일.

(나)

들은 지 오래더니 보았구나 백상투
 야속하다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처음으로 만나보고 예전 본 듯 반기니
 유정한 너인가 인연 있는 나이던가
 고려 옛터를 어느 해에 고쳤기에 [A]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듯하구나
 처마가 높이 솟아 공중에 들렸으니
 금빛 푸른빛 밝게 빛나 그림자가 물가에 뻗쳤네
 높은 난간 비껴 앉아 취하여 돌아보니
 좌우 현관의 옛사람들 지은 시는 [B]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었으니
 생각이 막혀 보낼 것이 전혀 없다
 수많은 푸른 산 흰 구름 사이에 솟아나 [C]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흩어져 있는 것은
 묘향산이 마주보여 푸른 병풍을 돌렸도다
 높다란 성곽이 산허리를 에둘러 [D]
 굽거니 펴거니 숨거니 뵈거니
 변방의 방비는 철옹성에 가깝도다
 약산동대에 늦은 구름 다 걷히고
 향로봉 어깨에 자줏빛 노을 비졌을 때
 창문을 열어젖히고 베개에 기대니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도 겨를 없다
 두 갈래로 내린 물이 누각 앞에 와 모아져
 세 갈래 물줄기 되어 섞여 도로 감도니
 쌍룡이 뒤틀며 여의주를 다투다가
 산성을 가로 풀어 갈라 나온 모양이로다
 (중략)

여울에 썰물 되어 물가가 열어졌으니

마름 캐는 동자와 빨래하는 아녀자는
 갯벌을 만나서 웃으며 가는가
 아침 물결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E]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연하니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
 - 이현, 「백상루별곡」 -

* 열자: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바람을 타고서 속세의 시비를 떠났다
 다가 15일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다)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20리가량 산
 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내닫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
 뒤 좌우에 굽적굽적한 산들이 뺨 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속에 묻힌 모양이 마치 움푹한 떡시루 같다고 해서
 동명을 '실레'라고 부른다. 집이라야 대부분 쓰러질 듯한 험 초가
 요, 그나마도 50여 호밖에 안 되는 말하자면 아주 빈약한 촌락
 이다. 그러나 산천의 풍경으로 따지면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여
 운 전원이다.

(중략)

산골에는 초목의 냄새까지도 특수하다. 더욱이 새로 난 잎이
 한창 흐드러질 임시해야 바람에 풍기는 그 향취는 일필로 형용
 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개운한 그리고 졸음을 청하는 듯한 그런
 나른한 향기다. 일종의 선정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짙은 향기다.

① 빠꾸기도 이 냄새에는 민감한 모양이다. 이때부터 하나들
 울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 해 만에 빠꾸기 울음을 처음 들을
 때처럼 반가운 일은 없다. 우울하고 구슬픈 그 울음을 들으면 가
 뜻이나 한적한 마을이 더욱 느러지게 보인다.

다른 곳은 논이나 밭을 갈 때 노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산
 골에는 소 모는 노래가 따로 있어 논밭 일에 소를 부릴 때면 으
 레 그 노래를 부른다. 소들도 세련이 되어 주인이 부르는 그 노
 래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노래대로 좌우로 방향을 바꾸기
 도 하고, 또는 보조 속도를 느리고 주리고 순종하기도 한다. 먼
 밭치에서 소를 몰며 처량히 부르는 그 노래도 좋다. 이것이 모두
 산골이 홀로 가질 수 있는 성스러운 음악이다.

산골의 음악으로 치면 물소리도 뺄 수 없으리라. 졸졸 내솟는
 샘물 소리도 좋고, 출랑출랑 흘러내리는 시내도 좋다. 그러나 세
 차게 팔팔 쏠려 내리는 큰 내를 대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논에 모를 내는 것도 이맘때다. 시골에서는 모를 낼 때면 새로
 운 희망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즐거운 노래를 불러가며 한 포기
 모를 심고 가을의 수확을 연상한다. 농군에게 있어 모는 그야말
 로 자식과 같이 귀중한 물건이다. 모를 내고 나면 그들은 그것만
 으로도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은 듯싶다.

- 김유정, 「오월의 산골짜기」 -

16.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다)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17.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누각의 모습을 보며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 ② [B]: 옛사람들이 지은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C]: 구름과 어우러진 산의 모습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성곽의 모습을 보고 변방 수비가 든든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⑤ [E]: 아침 풍경을 보는 화자의 내면을 열자와 연관 지어 표현하고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에서 자연은 화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가)에서 자연은 만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화자가 머물렀던 노후의 안식처이자 자족의 공간이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되는 공간이다. (나)에서 자연은 화자가 백상루에 올라 바라보며 감흥을 느끼는 대상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으며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① (가)에서 ‘먹인 은을 다 갚고자’ 했던 화자가 ‘이제 다 못 죽 음’을 ‘성은’으로 여기는 것에서, 자연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 심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칠십이 넘’은 화자가 ‘강호’에서 ‘십 년’ 넘게 살았 다는 것에서, 자연을 노후의 안식처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남이 ‘초초타 하’는 것을 ‘내 분’으로 여긴다는 것 에서, 화자가 은퇴 후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향로봉’에 노을이 질 때 ‘창문을 열고 ‘베개에 기대’는 것에서, 화자의 번잡한 마음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동자’가 ‘마름 캐’고 ‘아녀자’가 ‘빨래하는’ 것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은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1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즐거움이 투영된, ㉡는 글쓴이의 반가움을 유발 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의 내적 성찰을 일으키는, ㉡는 글쓴이의 경험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세월의 흐름을, ㉡는 글쓴이에게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의 한가로운 삶의 태도를, ㉡는 글쓴이의 현실 도 피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은 세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는 산골에 대한 글쓴이의 우호적 태도를 보여 준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930년대의 문학 작품에서 향토는 현실적 삶을 배제한 낭 만적인 전원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에서 글쓴이 는 이러한 경향을 받아들여, 산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그려냄으로써 일상이 깃들여 있는 산골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산골의 자연은 세밀한 묘사를 통해 구체성을 획득하며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 ① 집 대부분이 ‘쓰러질 듯한 현 초가’라는 것에서 산골 사람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이 짐작되는군.
- ② ‘산천의 풍경’을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전원’이라고 한 것은 산골을 낭만적인 전원으로 제시한 것이군.
- ③ ‘논밭 일에 소를 부릴 때면 으레 그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현실적 삶을 배제한 산골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④ ‘샘물’, ‘시내’, ‘큰 내’의 물소리를 하나하나 묘사한 것에서 산 골의 자연이 생동감 있게 드러나는군.
- ⑤ 농군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눈에 모를 내는 것’에서 산골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이 확인되는군.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서,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조세 채권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하는데, 과세 요건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인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인 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데, 1년 단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만약 세법이 개정된 후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납세 의무 성립 단계에서는 ㉠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과세 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면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과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것을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 한다. 이때 ‘확정’은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을 의미한다.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 국가는 이 방식을 통해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신고 납세 방식과 부과 과세 방식이 있다.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후의 절차는 다르다. ㉣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이다. 이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방식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신고 납세 방식의 1차적인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미신고하거나 자진 신고했으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 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한 때에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1차적으로 확정된 납세 의무는 효력을 상실한다.

㉤ 부과 과세 방식은 납세 의무 확정권을 과세 관청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과세 관청이 확정한다. 만약 신고에 탈루의 정황이 발견되면 과세 관청이 추가 조사해서 세액을 확정한다. 이 방식에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 과세 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세, 상속세는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

그런데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과세 관청을 상대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 청구는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과세 관청의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의 직권으로 미납 세금에 먼저 충당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도 한다.

* 경정: 과세 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이미 확정된 세액을 과세 관청이 변경하는 것.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 의무자가 탈루할 가능성이 없다.
- ②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법정 비율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 ③ 과세 관청은 납세 의무자의 환급금을 미납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⑤ 국가는 납세 의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각종 행정 서비스의 경비로 사용한다.

22.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가 조세 채권을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상황을 가리킨다.
- ② 국가가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 ③ 과세 관청이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 ④ 납세 의무자의 납부 세액과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
- ⑤ 과세 요건 충족으로 과세 관청의 과세권이 자동적으로 성립한 상황을 가리킨다.

23. ㉠ ~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납세 의무자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절차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더 민주적인 방식이다.
- ③ ㉣과 ㉤ 모두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강제성이 없다.
- ④ ㉠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으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달 신고액은 ㉣으로 확정된다.
- ⑤ ㉠은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은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할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생긴다.

2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현재 ○○ 회사에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다. 갑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하고 과세 관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갑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의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을은 2024년 4월 30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을은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과세 관청에 제출했다.

(단, 갑과 을은 모두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 ① 갑이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긴 후에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소득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알았다더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수정 신고를 할 수 없겠군.
- ② 을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기재한 과세 표준 신고서를 과세 관청에 제출한 후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겠군.
- ③ 을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하고 과세 관청의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겠군.
- ④ 갑과 을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과세 관청에 제출한 시점에서는 갑과 달리 을은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았겠군.
- ⑤ 개정된 세법이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갑과 을은 개정 이후의 세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겠군.

25.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저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하지.
- ② 김 노인은 올해 벼 수신했다 했다.
- ③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 ④ 그는 시내에서 조그만 음식점을 하나 하고 있다.
- ⑤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제주도가 제일 먼저 생각한다.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머니는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했다. 노인정에서 점심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 날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숟가락을 들고 밥통부터 찾곤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집** 전기밥통에는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게 마련이다. **밥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까탈을 부리며** 심하게 며느리를 닦달했다. 어머니한테 밥은 곧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다. 어머니는 또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을 떨며 당장 병원에 찾아가 주사 맞는 것을 좋아했다. ㉠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어머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보전하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다. ㉡ 몸살이 나서 땀 뻘뻘 났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젊었을 적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으로 행복해하였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삶은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의** 그것이었다. 한창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소박을 당해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반겨충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았다.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다.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버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 있었다.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살게 되자,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 더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도 모른다. 따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부터 고부 사이가 서서히 버그러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짜증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내 코에 어머니의 냄새는 오래된 신 김치에서 나는 군내 같기도 하고, 쿠리한 된장 냄새, 시지근한 땀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 고리고리한 멀치젓 냄새, 꿀꿀한 두엄 썩는 냄새, 짹조름한 오줌버께 지린내, 고리착지근한 발가락 고린내, 생고등어 비린내, 시금털털, 고리탑탑, 쓰고 시고 짜고 매운 냄새 등이 적당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는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다. 아내가 외출할 때 몸에 뿌리는 불란서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다. 어머니의 냄새가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다. 친구들과 싸움질을 하다 얻어맞고 분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을 때도 어머니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어머니의 냄새를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 ‘나’는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 둔친 목소리로 한바탕 쏘아댔다.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현기증을 일으키며 흐물흐물 쓰러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버렸다.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었다. 온종일 누워 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나는 우선 창문부터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 라벤더 향수를 듬뿍 뿌려댔다. ㉠ 아내가 누워 있는 사이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와보지 않았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네 처 또 아프냐?”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어머니가 마뜩찮은 표정으로 뚜벅 물었다.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생똥맞게 물었다.

“왜? 에미한테서 냄새날까 싶어서?”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겠제잉. 그리고 살림살이 냄새도 날 것이고. 아무 냄새도 안 나면 워디 사람 사는 집이간디, 그것이사 귀신이 사는 집이제잉.”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지요?”

“나한테서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

“아주 심해요.”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느라 연신 코를 벌름거리며 쿵쿵거렸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디.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녀.**”

어머니는 ‘절대로’라는 말에 힘을 주어 단호하게 부인했다.

“자, 어디, 한번 맡어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상반신을 내 앞으로 바짝 꺾으며 재촉했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부지런히 손가락질만 해댔다.

“이눔아, 에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에미가 자식 놈들을 위해서 알탕갈탕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겨.”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어가며 말했다. ㉡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이 명치끝을 후벼 뚫었다.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 문순태, 「늪으신 어머니의 향기」 -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사건을 교차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전환하여 사건의 다양한 면모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작중 상황의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27.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어머니의 완고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 자신을 돌보기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 어머니의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 아내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 어머니가 한 말에 아픔을 느끼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설은 감각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작품은 자식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기본적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냄새를 문제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작가는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을 통해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지적한다.

- ① ‘집’에 ‘밥이 없으면’ ‘까탈을 부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가 ‘생에 대한 집착’이라 생각하는 것에는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드러나 있군.
- ② ‘어머니의 삶’을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으로 보는 것에는 어머니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③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군.
- ④ ‘어머니의 냄새’를 ‘역겹다고 느끼는 ‘나’와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아내의 말에서 어머니의 냄새를 문제시하는 자식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⑤ ‘아주 심해요’라는 ‘나’의 말과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녀’라는 어머니의 말에서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이 표출되고 있군.

[29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프랑스의 철학자 리콥르는 텍스트, 즉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해석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하여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하였다.

미메시스란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본 플라톤은 현실을 이상 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는데,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그 현실을 또 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감각 세계인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하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그 갈래마다 모방의 양태가 다르다. 연극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 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하고, 서사시는 서술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현실을 모방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이며,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이 리콥르는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하고자 하였다.

리콥르는 미메시스를 전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I,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II, 재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III의 삼중 구조로 설정하였다. 미메시스 I은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화하기 전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미메시스 II는 미메시스 I에서의 행동이 서사적 흐름 속에서 ㉢줄거리로 구성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작가는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중에서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만을 ㉣골라 인과 관계에 따라 배치한다. 이때 형상화된 세계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세계이다. 미메시스 III은 문학과 현실 세계를 ㉤잇고자 했던 리콥르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독서를 통해 허구적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비추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사건을 선택하여 ㉥줄거리를 만들어 보며 현실 세계에서 의 삶을 반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메시스 III에서는 독자의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데, 리콥르는 이를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야기 정체성은 이야기를 매개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으로,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이다. 리콥르에 따르면 독자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독자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 과정이다. 리콥르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되며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다.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메시스 I 과 미메시스 III은 미메시스 II를 매개로 연결된다.
- ②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미메시스 III에서 작가에 의해 형상화된다.
- ③ 리콥르의 미메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 ④ 독자가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에 이르는 과정은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를 따른다.
- ⑤ 작가는 미메시스 II에 나타난 행동의 의미를 미메시스 III의 독자가 이해할 것으로 여긴다.

30. ‘예술’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플라톤: 서사시와 연극은 감각 세계를 모방한 양태가 다르다고 보았다.
- ② 플라톤: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함으로써 세계를 이상과 현실로 나눈다고 보았다.
- ③ 플라톤: 인간을 이상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도록 한다고 보았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 있을 법한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의 창조적 모방이라고 보았다.

3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현실을 직접 모방한 것이고, ㉥은 현실을 간접 모방한 것이다.
- ② ㉠은 작가가 구성한 인물의 이야기를, ㉥은 독자가 구성한 자신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 ③ ㉠은 미메시스의 전형상화 단계에 해당하고, ㉥은 미메시스의 재형상화 단계에 해당한다.
- ④ ㉠은 ㉥과 달리 언어로 표현되기 전의 이야기이다.
- ⑤ ㉥은 ㉠과 달리 인물의 행동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32. 리코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많은 A는 의사의 삶을 다룬 소설을 읽었다. 소설에는 의사로서의 B의 삶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B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한 어린 환자가 성인이 되어 B를 찾아왔고, 예전보다 몹시 바빠진 상황에서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B에게 어린 시절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는 에피소드를 A는 감명 깊게 읽었다.

- ① 작가는 소설을 쓰기 전에 의사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고자 했겠군.
- ② B가 어린 환자를 돌보는 행동은 작가가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고른 것이겠군.
- ③ 소설 속 에피소드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인과 관계에 따라 배치한 것이겠군.
- ④ A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B의 에피소드를 읽으며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았겠군.
- ⑤ A는 소설을 읽고 B의 이야기 정체성을 따뜻한 내면을 지닌 인물로 파악할 수 있겠군.

33. ㉠~㉣와 바꾸어 쓸 수 없는 말은?

- ① ㉠: 지칭하는
- ② ㉡: 수용하여
- ③ ㉢: 선택하여
- ④ ㉣: 계승하고자
- ⑤ ㉤: 투사하여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황운이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을 좇아 아니 탄 것이 없고 가속 삼십여 명이 죽었고, 동네 사람이 겁내어 다 도망하였는지라. 황운이 하늘을 우러러 일장 통곡한 후 헤아리기를, ‘이는 진권의 소행이니 이곳에 있다가는 남은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매, 장차 사명산을 찾아 가려니와, 종적이 없이 가면 설 소저가 나의 존물을 몰라 반드시 몸을 보전치 못하리니, 생사를 알게 하고 가리라.’

하여 ㉠ 절구 십여 수를 지어, 설연의 집 후원에 들이치고, 이날 사경(四更)에 떠나 사명산으로 향할새, 몇 달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한 사람이 사자를 타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라. 황운이 노인을 따라 수 리를 들어가더니, 높은 벼랑 아래 이르러는 그 노인이 채를 들어 사자를 친즉, 사자가 두어 번 뛰놀며 벼랑 위에 올라가는지라.

황운이 능히 오르지 못하여 벼랑 아래서 방황하더니, 문득 본즉 벼랑 사이에 큰 길이 있거늘 황운이 길을 좇아 들어가며 살펴본즉 수십 장 벼랑 위에 백수 노인이 앉아 청의 동자에게 옥피리를 불게 하거늘, 황운이 섬돌 아래로 나아가 재배(再拜)하니, 노인이 문득 동자를 명하여 산령을 부르라 하더니 산 위에서 좇아 큰 사자가 내려와 노인 앞에 굴복하는지라.

노인이 꾸짖기를, “㉡ 네 이미 이 산을 지킬진대, 진토 미생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하게 함이 옳을쏘냐?”

하니 그 사자가 듣기를 다하매, 화가 난 마음이 등등하여 주홍같은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거늘, 황운이 급히 몸을 날려 벼랑 위에 올라 앉아 꾸짖기를,

“㉢ 아무리 속인(俗人)이라 해도 어찌 명산에 출입지 못하리오. 내 비록 용렬하나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아노라.”

하고 몸을 날려 내려가며 손을 들어 사자의 머리를 치니, 사자가 휘파람을 길게 하고 간 데 없는지라. 그제야 황운이 도사의 술법인 줄 알고, 다시 노인 앞에 나아가 이르되,

“㉣ 소자는 가공한 사람으로 사명산 도인을 찾아 가다가 길을 그릇 들었사오니, 바라건대 존군(尊君)은 아득한 인생을 인도하소서.”

노인 이르기를, “무슨 일로 사명산을 찾아가느뇨?”

황운이 이르기를, “사명산 도인을 찾아 제자가 되어 술법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노인 이르기를, “㉤ 그대 재주를 보니 그만하여도 세상이 용납할 것이요, 이제 시절이 태평하거늘 술법을 배워 무엇 하려느뇨?”

황운이 이르기를, “㉥ 현원씨도 치우의 난을 만나고, 주나라 문왕도 훈족의 침입을 당하여 계시니, 비록 태평시절이라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함이 옳으니이다.”

노인 웃으며 이르기를, “그러할진대 나를 따라 오라.”

하거늘, 그제야 황운이 사명산 도인인 줄 알고, 노인을 따라 한 곳에 이르러는 팔문둔갑과 진법과 검술을 배우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설연은 양철 등의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 태항산에서 도술을 배운다. 진권과 그 형제인 진형, 진걸은 반역을 꾀하고, 이에 황제는 설연을 원수에, 황운을 부원수에 명하여 이들을 토벌케 한다.

원수가 조서를 읽어 장졸 등을 다 알게 한 후 진형을 죽인 연유를 황제께 전하고, 진권을 잡을 계교를 생각할새, ㉠ 천서 옥갑경을 보다가 문득 일계를 생각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이르기를,

“팔십만 병이 각각 부대* 하나씩 대령하되, 오월 이십이일 술시(戌時)에 웅주를 파하리라.”

하니 여러 장졸이 그 곡절을 모르고 다만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물러나니라.

이때는 오월 이십이일이라. 진걸이 진권에게 이르기를,

“금일은 을사일이니 만일 기묘시(己卯時)에 큰비 시작하면, 술시까지 올 것인데, 성 안의 수도(水道)를 신척*하라.”

하더니 과연 묘시 말에 큰비가 시작하는지라. 이날 인시(寅時)에 원수가 일시 제군을 재촉하여 조반을 먹이고, 각각 부대에 모래를 담아 대령하였더니, 술시 되매 연하여 큰비가 내려 평야에 다 물이 불어 넘치는지라. 성 안의 큰 냇물이 미처 나오지 못하여, 원수가 영을 내리매 팔십만 병이 일시에 모래 넣은 부대로써 수도를 곳곳에서 막으니, 물이 흐르지 못하여 성을 넘는지라.

진권이 대경하여 성곽 위에 올라 물을 피하나, 어두운 밤에 당하매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다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더니, 문득 전선장(戰船將) 양달이 진권의 위급함을 보고 전선 십여 척을 성곽 아래에 대거늘, 진권이 진걸과 더불어 겨우 장사 오십여 원을 데리고 동쪽을 바라고 달아나니라.

이때 원수가 진권의 달아남을 보고 군사를 분부하여 막은 물을 트고, 성 안에 들어 성상에 청도기를 세워 백성을 두루 살펴 위로하고, 정병 십만을 모아 급히 진권을 쫓아가니라.

진권이 동오(東吳)에 다다라 청홍성에 웅거하였더니, 문득 군사가 보고하되, 설연이 이미 성 아래에 결진하였다 하거늘, 진권이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원수가 진권이 청홍성에 들을 보고 동오 지도를 들어본 후,

“중장(重將)을 각각 분발하여 십 면에 매복하여 여차여차하라.”

하고 스스로 대군을 거느려 오주에 진을 치고 싸움을 돋우되, 진권이 마침내 나지 아니하더니 이십여 일 만에 식량과 말을 먹일 풀이 부족해져 군마와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지라.

이에 진권이 배수(背水) 일전을 생각하고, 즉일에 진걸로 선봉을 삼고 양철로 후군장을 삼아 잔병 오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청하거늘, 원수가 하령하기를,

“병법에 궁구막추*라 하니 도적에 길을 열어 주고 뒤를 쫓음이 가하리라.”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군사를 거두어 길을 열어 주니, 진권이 의심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급히 오주로 달아나는지라. 원수가 그제야 각 진에 호령하여 기고(旗鼓)를 세워 급습하니, 진권이 황망 분주할 즈음에 서하규와 우시춘 등이 일시에 힘차게 돌진하여 나아가 진걸과 진권과 양철 부자 등을 다 산 채로 잡았거늘, 원수가 진걸을 효수하고 진권 등을 함거에 넣어 경사로 보내고 원수는 뒤를 쫓아 회군하니라.

- 작자 미상, 「황운전」 -

* 부대: 종이, 피륙, 가죽 따위로 만든 큰 자루.
* 신척: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 궁구막추: 피할 곳 없는 도적을 쫓지 말라는 뜻.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진걸은 웅주에 머무르다 원수에게 사로잡힌다.
- ② 진권은 성이 물에 잠겨 성을 버리고 달아난다.
- ③ 원수는 큰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백성들과 함께 대피한다.
- ④ 양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권에게 닥친 어려움을 외면한다.
- ⑤ 황운은 청의 동자의 도움으로 벼랑에서 사명산 도인을 만난다.

35.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노인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자를 책망하고 있다.
- ② ㉡: 황운은 사자를 꾸짖음으로써 앞선 노인의 말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황운은 자신과 대화하는 노인이 사명산 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④ ㉣: 노인은 황운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황운이 술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 ⑤ ㉤: 황운은 고사를 활용하여 태평한 시절에도 위태로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3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황운이 설연에게 자신의 안부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다.
- ② ㉡는 원수가 진권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황운이 설연에게, ㉡는 원수가 황운에게 상대방과 한 약속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은 황운이 설연에게 자신의 상황을, ㉡는 원수가 장졸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 ⑤ ㉠과 ㉡는 각각 황운과 원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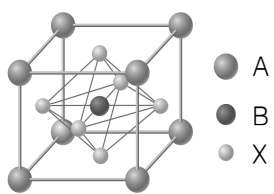
<보 기>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영웅성을 부각한다. 이 작품에서는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뿐만 아니라 병법을 활용하거나 날씨, 지형 등의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부각되어 흥미가 더욱 고조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적대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서사적 긴장감이 드러나고 있다.

- ① 황운이 '사명산 도인'에게 '팔문둔갑과 진법과 검술을 배우'는 것에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이 드러나는군.
- ② 원수가 '정병 십만을 모'고 '기고를 세워 급습하'는 것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의 영웅성이 드러나는군.
- ③ 원수가 '동오 지도'를 보고 '십 면에 매복하'라고 지시하는 것에서,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비범함이 드러나는군.
- ④ '싸움을 청'한 진권에게 원수가 '궁구막추'라는 병법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주인공의 지략이 부각되어 독자의 흥미가 고조되는군.
- ⑤ '웅주'에서부터 '오주'까지 이어진 원수와 진권의 전투에서, 주인공과 적대자 간의 서사적 긴장감이 드러나는군.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너지 공급 분야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또는 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전지인 실리콘 태양전지는 무기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광전 변환 효율이 높고 사용 수명이 길지만 가격이 고가이고 가공성이 떨어진다. 유기 물질을 재료로 사용하는 유기 태양전지는 가격은 저렴하고 가공성이 뛰어나지만 광전 변환 효율이 낮고 사용 수명이 짧다. 이에 따라 저가로 제작이 가능하고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그림]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꼭짓점에 크기가 큰 양이온(A)이 있고, 가운데에 작은 양이온(B)이, 각 면 중앙에 음이온(X)이 존재하는, 큐빅 구조의 결정을 가진 물질들을 가리킨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아 약한 에너지 자극

에도 반응이 활발하며, 빛에 의해 전하, 즉 전자(⊖)와 정공(⊕)을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다. 화학적 합성이 가능한 여러 이온들이 A, B, X 자리에 올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페로브스카이트가 형성된다. 그중 ㉠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A에 유기 양이온이, B에 무기 금속 양이온이, X에는 음이온이 온다.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전하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친다. A, B, X 자리에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올 경우에는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전 변환을 위해 협력하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명 전도성 산화물(TCO)층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면 전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잘 투과하는 산화물 유리 기판*을 사용한다. 전자 수송층은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TCO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층으로, 두 층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전자 수송층에는 무기 반도체 금속 산화물인 이산화 타이타늄이 사용되고 있다. 이산화 타이타늄은 내부에 나노 크기의 공기 구멍을 가진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어 전자 수송에 용이하고, 페로브스카이트층과의 흡착력을 높여 태양광 입자가 최대한 흡수되도록 한다. 태양광이 TCO층과 전자 수송층을 지나 중심부인 페로브스카이트층에 도달하여 흡수되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어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 전자가 있던 자리에는 정공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정공 수송층은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생성된 정공을 후면 전극으로 수송하는 층이다. 열에 안정적이고 합성이 간단한 유기 반도체 소재가 사용되는데, 이는 전도성을 높이고 정공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후면 전극은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금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정공은 각각의 수송층을 통하여 양쪽 전극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음극에서 양극으로의 전자 이동이 가능한 외부 회로가 형성되고 전류의 흐름이 가능해진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곡면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며, 빛 투과도나 색채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 짧은 사용 수명,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 사용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판: 전기 회로가 편성되어 있는 판.

38.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요소별로 분석하여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변화 양상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과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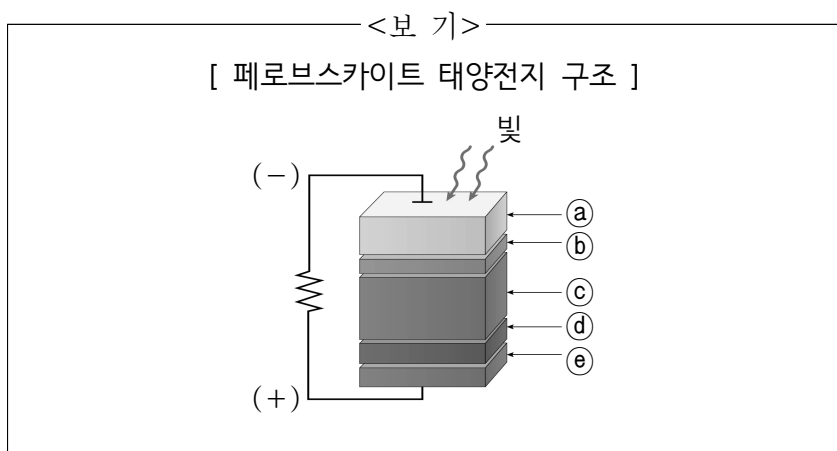
3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형태나 색채 조절이 불가능하다.
- ② 산화물 유리 기판은 전류가 잘 흐르지만 빛의 투과율이 낮다.
- ③ 태양전지의 반도체 소자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 ④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사용 수명은 짧지만,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 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이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빛에 의해 전하를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다.
- ②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아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낮다.
- ③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져 생성되는 전하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④ 유기 이온과 무기 이온 등으로 구성되어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핵심이 된다.
- ⑤ A, B, X 자리에 오는 이온이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인지의 여부에 따라 광전 변환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41.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태양전지의 전면 전극으로 ㉢에서 생성된 전자를 전달 받는다.
- ② ㉡는 ㉠과 ㉢의 직접 접촉을 막아 태양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 ③ ㉡와 ㉣는 모두 전하를 효과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전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 반도체 소재를 사용한다.
- ④ ㉢가 ㉠, ㉡를 통과한 빛을 흡수하여 전자와 정공을 생성하면,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⑤ 전자와 정공이 각각 ㉡와 ㉣를 통해 ㉠과 ㉢에 도달하면 외부 회로가 형성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유기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빛을 흡수하는 정도인 흡광 계수가 1,000배 이상 높아 매우 얇은 두께에서도 빛의 흡수를 극대화하여 다량의 전하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전 변환 효율이 실리콘 태양전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빛의 흡수로 생성된 전자의 이동 거리가 짧고, 이동 속도가 느려 소량의 전자만이 전극에 도달하고 전극에 도달하지 못한 나머지 전자들은 에너지를 잃어 정공과 다시 결합하기 때문이다.

나. 탄소는 다른 원소 특히 수소, 산소, 질소 등과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탄소가 주요 성분이 되는 유기 물질은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부식되거나 연소되기도 한다.

- 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군.
- ②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유기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흡광 계수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겠군.
- ③ 유기 태양전지의 사용 수명이 짧은 이유는 재료로 사용되는 유기 물질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물질과 외부 환경과의 반응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겠군.
- ⑤ 유기 태양전지가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광전 변환 효율이 낮은 것은 생성된 전하 대비 전극에 도달한 전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겠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
㉠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털 난 몸뚱이 갈가리 찢어지고

㉢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별걱별걱 물사발 들이켜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잊었어, **빨아낼** 테지만

㉣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조막만 한 손으로 뺏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당신
- 이성복, 「꽃피는 시절」 -

(나)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

모난 돌맹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검은 돌맹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 늘어선 나무며 나는 새까지
접쳐서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입지 않는다

바람은
설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의 줄글을 다 읽기는 하는 건지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바닥이 깊고도
높다

- 권정우, 「저수지」 -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44. **나**와 **당신**의 관계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나’가 ‘당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당신’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나’가 ‘당신’ 때문에 느껴야 하는 다양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당신’을 보낼 일에 대한 ‘나’의 막연함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나’에게서 벗어나려 애쓰는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가)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 개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인고와 희생이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사랑으로 품어내는 저수지의 모습을 통해 포용이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추운 땅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온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른 희생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굳은 살가죽에 불’을 ‘댕길 일’은, 꽃을 피우는 순간에 감당해야 할 고통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모난 돌맹이’나 ‘검은 돌맹이’를 ‘모난 파문’이나 ‘검은 파문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사랑으로 품는 저수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저수지가 ‘하늘’까지 ‘넘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수지의 넓은 포용 범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는 ‘내 안’에서 꽃을 ‘빨아’내는 과정을, (나)에서는 ‘자기 안’으로 주변의 존재가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